

이승은 | 연구원 (제 7243)

- 주요 뉴스: 미국 8월 비농업고용지수, 예상치를 큰 폭 하회하며 부진
 - 굴스비 연은 총재, 금리 인하 전 인플레이션 감소를 확인할 필요
 - 독일, 7월 산업수주 감소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 기록
 -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, 연준 전면 재검토 주장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8월 고용 둔화로 불확실성 및 금리 인하 기대 동시 확대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 후 성장 우려로 반락
유로 Stoxx600지수는 경기 약화 우려, 부채 압박 등으로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고용 부진에 따른 노동시장 약화 우려로 하락
유로화 가치는 0.58% 상승, 엔화 가치는 0.71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하락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6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종가 1384.7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7원, 0.29% 하락). 한국 CDS 약보합

		9/5일	9/4일	전일대비			9/5일	9/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6,481.5	6,502.1	-0.32%	국채 금리 10y	미국	4.07%	4.16%	-9bp
	유럽	549.21	550.09	-0.16%		독일	2.66%	2.72%	-6bp
	중국	3,812.5	3,765.9	+1.24%		영국	4.65%	4.72%	-7bp
	일본	43,019	42,580	+1.03%	CDS 5y	한국	19bp	19bp	-0bp
	한국	3,205.1	3,200.8	+0.13%		중국	41bp	41bp	-0bp
환율	달러지수	97.7	98.3	-0.62%	위험 지표	EMBI+	-	360	-
	유로화	1.1717	1.1649	+0.58%		VIX	15.18	15.3	-0.78%
	엔화	147.43	148.49	+0.71%		WTI유	61.87	63.48	-2.54%
	위안화	7.1328	7.1416	+0.12%	원자재	구리	448.25	448.8	-0.12%
	원화	1,391.0	1,392.5	+0.11%		금	3,586.7	3,545.9	+1.15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8월 비농업고용자수, 예상치를 큰 폭 하회하며 부진

- 8월 비농업고용자수는 2.2만명 증가에 그치며 예상(+7.5만명)을 크게 하회. 7월 수치(+7.3만명→+7.9만명)는 상향 조정된 반면 6월 수치(+1.4만명→+1.3만명)는 조정되어 '20.12월 이후 처음으로 고용 감소. 8월 실업률은 4.3%(전월 4.2%)로 '21년 이후 최고 수준
- 연방정부, 제조, 건설, 서비스업 부문 등에서의 광범위한 고용 감소가 의료 부문의 증가(+3.1만명)를 상쇄.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수입관세 부과와 이민 단속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고용 정체로 이어졌을 소지(Reuters)
-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고용 증가(+2.9만명)가 작년 동기간(+8.2만명) 수준을 크게 밑도는 등 둔화세가 뚜렷하여 8월 고용은 계절적 요인보다는 노동시장 약세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는 분위기
- 고용 부진과 실업률 상승이 노동시장의 심각한 악화를 시사한다는 우려가 고조되며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강화. Fitch에 따르면, 물가 목표가 2%에서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시장 안정을 우선할 가능성
- 시장은 올해 남은 3번의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각각 25bp씩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, 연준이 9월 5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거론(NYT)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쿨스비 연은 총재, 금리 인하 전 인플레이션 감소를 확인할 필요

- 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으로 9월 FOMC 회의가 금리 인하의 적절한 시기인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발언. 금리 인하 전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
- 8월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 증가 둔화에도 불구하고, 해고율과 구인율을 지목하며 고용시장은 여전히 완전고용에 준하는 안정세를 보인다고 평가. 다만 고용 수치가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첨언

■ 독일, 7월 산업수주 감소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 기록

- 독일의 7월 산업수주는 전월 대비 2.9% 감소(vs 예상치 +0.5%)하여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, 1월 이후 최대폭 감소. 항공기, 선박, 열차 등 대형 수주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. 대형 수주를 제외한 신규 수주는 0.7% 증가
- 라이헤 독일 경제장관은 이번 수치가 경제의 경쟁력 저하를 시사한다며, 시급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. DIW 등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경기 반등 기대감 저하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.3%(6월 예상치)에서 0.1%로 하향 조정

■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, 연준 전면 재검토 주장

- 베센트 재무장관은 통화정책, 규제, 인사 등 연준 전반에 대한 초당적 검토를 촉구하며 은행 감독 기능의 정부 이관과 위기 상황 외 채권 매입 축소를 주장. 해당 발언은 차기 연준 의장 면접 일정과 맞물려 나오며, 중앙은행 독립성 약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영향력 강화 의도를 시사

■ 중국, EU산 돼지고기에 최대 62% 잠정 관세 부과

- 중국은 EU 기업들이 돼지고기를 덤핑 수출하여 자국 산업에 '실질적인 피해'를 입혔다는 혐의에 따른 조치로 EU산 돼지고기 수입품에 15.6%~62.4%의 잠정 관세를 부과할 계획. 지난해 10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%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(Bloomberg)

■ 미국 이민 당국, 조지아 현대차 배터리 공장 대규모 급습해 수백 명 근로자 구금

- 당국은 불법 이민 단속 차원에서 현대차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체류 자격이 없는 근로자 수백 명을 체포했으며, 이 중 약 300명 대부분이 한국 국적자

■ 사우디아라비아, OPEC+ 원유 증산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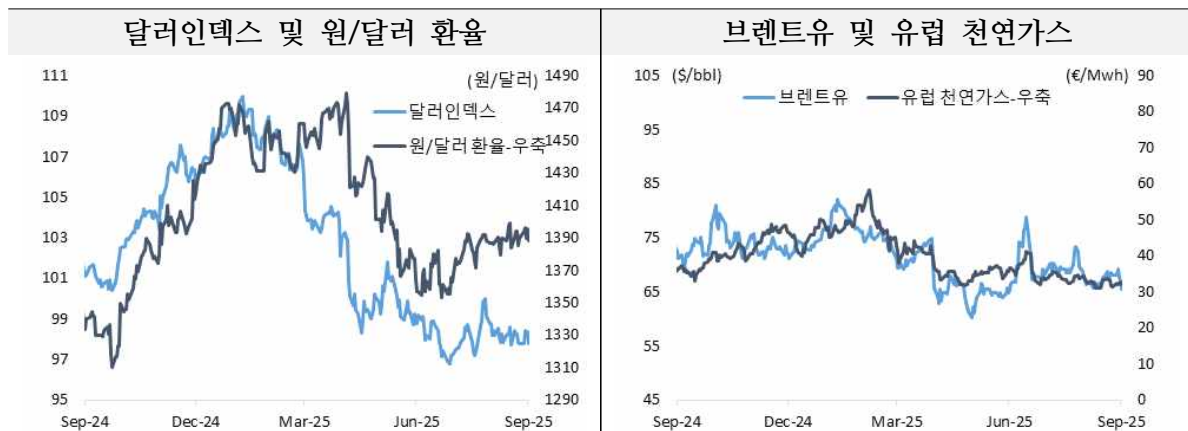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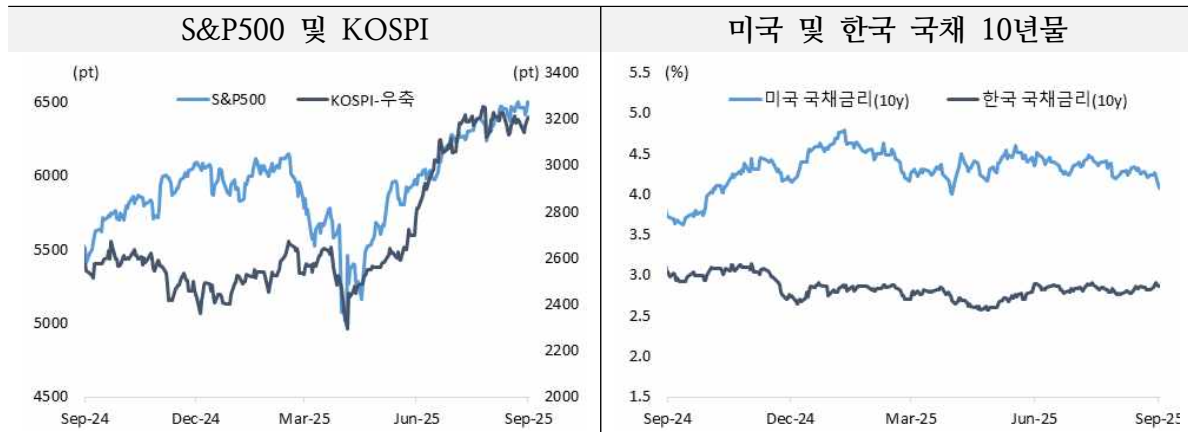
-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 OPEC+ 증산을 검토 중이며, 빠르면 일요일에 합의될 가능성. 증산 시 OPEC+ 전략은 가격보다 점유율 방어로 전환

주요 경제 지표

■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(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CPI(11일), ECB 9월 통화정책회의(11일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7, E-mail selee@kcif.or.kr